

은전한 행복의 조건

이종원 (숭실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 행복한가?
- II. 한국 사회의 웰빙 신드롬
- III. 개인적 차원의 행복
 - 1. 행복과 행운
 - 2. 쾌락과 행복
 - 3. 덕스러운 삶과 행복
- IV. 사회적 차원의 행복
- V. 영적 차원의 행복
- VI. 나오는 말: 행복 공동체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 ABSTRACT •

The Condition of Perfect Happiness

Lee, Jong-Won

In this paper, I want to survey the condition of perfect happiness. We normally think that happiness is subjective state of mind, but we should treat happiness as concept connected community directly. And also we must relate happiness with spiritual dimension beyond public well-fare.

I propose well-being as individual happiness, and well-fare as happiness of public dimension, and then spiritual well-being as happiness of spiritual dimension. I hold that perfect happiness realize in our life when these three dimension come true harmoniously.

Today, well-being becomes new trend in our society. This trend combines commercialized consumption culture. But this is not good well-being. Individual happiness means not pleasure nor content, but well and good life. Therefore happiness means that we live good life with virtue.

Well-fare means happiness of institutional and collective concept. If we enjoy the happiness, we must stand on the basis spiritual well-being that gives the meaning and ultimate goal of life. If we accept our life as the gift and blessing of God and thank to God, we will feel spiritual happiness. This is true and everlasting happiness that fulfill life itself. Therefore true happiness is good life with virtue and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good spirit with God.

Key words: Happiness, Well-Being, Welfare, Spiritual Well-Being, Quality of Life, Virtue, Grace

I.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 행복한가?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사는 모습은 각자 달라도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¹⁾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들 가운데 가장 높은 목적 그 자체이라 할 수 있다.²⁾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행복한 사회인가?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에 대한 국제조사 결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4.9%(1988년)에서 30.3%(2010년)으로 증가했고, 조사대상국 응답자들의 41.5%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2010.8.16)가 세계 100개국을 대상으로 선정한 세계 베스트국가에서도 한국은 종합 15위에 올랐다.³⁾ 이는 그동안 한국이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단하게 힘써 노력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위상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5위(100점 기준으로 67.8점)이다.⁴⁾

1) 미국 독립선언문은 1776년에 ‘행복의 추구(pursuit of happiness)’를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 선언하였고, 1793년 프랑스 혁명 헌법은 ‘공공의 행복’을 사회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2) 데이비드 흄이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달성이다. 행복을 위해 기술을 발명하고, 학문을 육성하고, 법을 만들고, 사회를 형성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부, 명예, 존경과 같은 목표들은 모두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모두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Tal Ben-Shahar, *Happier*, 노혜숙, 『해피어』(서울: 위즈덤하우스, 2008), 72.

3)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1』(서울: 미래의창, 2010), 32. 국제연합개발계획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 연속 세계 26위 수준을 유지하였다. 윤강재·김계연,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159호, 2010.1, 88.

4) 윤강재·김계연,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86. 김승권,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년 12월, 335.

또한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설문 조사한 결과 어린 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65.98점으로, OECD 23개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2009년부터 3년 연속 60점대 점수로 이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⁵⁾

2006년 6월 SBS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88%였는데, 2005년 74%로 10년 사이 14% 하락했고, ‘삶의 질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60.2%가 앞으로 ‘더 불행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⁶⁾ 또한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실시한 행복행성지수(Happy Planet Index)에서 한국이 세계 178개국 중 102위를 기록했고, 영국 레스터대학이 실시한 세계행복지도(World Happiness Map)에서도 한국이 102위를 기록했다.⁷⁾ 한국의 GDP가 세계 12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상의 통계로 본다면,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행복하지 않는 사회임이 분명하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성취지향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취지향적인 사고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행복을 위해 앞만 보고

5) 서울신문 2011년 5월 5일자. 2006년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의 행복도는 ‘교육’에서는 최상위권, ‘보건과 안전’에서는 상위권, ‘물질적 행복’,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관련 행위’의 영역은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이었고, ‘주관적 행복’ 영역은 최하위였다.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 비교」,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44집 2호, 2010년 4월, 121.

6)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9, 16.

7) 2005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한국의 주관적 웰빙 지수는 82개국 중 49위를 기록하였고, 2005년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에서도 95개국 중 56위를 기록하였다. 같은 책, 11-15.

달려 온 결과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성취가 곧 행복이라 여겼는데, 성취지향적인 삶의 태도는 오히려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행복의 의미를 삶의 질과 연관시켜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행복과 연관된 웰빙 바람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⁸⁾ 웰빙 음식, 웰빙 용품 등 우리 삶에 다양한 형식으로 웰빙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웰빙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심리학 연구논문목록에 행복, 삶의 만족, 웰빙에 관한 논문이 1979년에 150편이던 것이 1989년에는 무려 780편으로 늘었다.⁹⁾ 전 세계적으로 행복에 관한 서적 출판 건수를 보면 2000년 50권에서 2008년에는 4,000권으로 무려 80배나 증가했다.¹⁰⁾ 또한 하버드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과목 중 하나는 행복을 주제로 하는 긍정심리학 강의이다. 하버드는 물론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도 긍정심리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를 보면 21세기 들어서 행복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각박하고 삶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본 소고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행복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온전한 행복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행복을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고찰하면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진정한 행복의

8) 이덕환은 웰빙은 행복의 현대적 표현으로, 경제적 자본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문화적 과학기술주의가 엮어낸 시대정신의 산물로 보았다. 이덕환, 『웰빙과 행복』(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15.

9) David G. Myers, *The Pursuit of Happiness*, 김영곤·오강남·이동렬·이연섭, 『주머니 속의 행복』(서울: 시그마북스, 2008), 12

10) 이상철, 「행복의 커뮤니티케이션」, 동서언론학회, 『동서언론』 13집, 2010년 2월, 9.

가치를 나누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한국 사회의 웰빙 신드롬

행복은 시대와 문화, 철학, 종교적 해석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어 왔다.¹¹⁾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경제나 사회적 환경이 개인에게 행복이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실용주의가 부각되던 때에는 행복과 유용성이 정치적 변수가 되기도 하였다. 21세기에는 들어서면서 삶의 질이 중요하게 고려되면서 행복은 삶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감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¹²⁾

최근 한국 사회에는 삶의 질과 연관되는 웰빙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웰빙 도시, 웰빙 식품, 웰빙을 위한 헬스클럽과 수영장 및 골프장 등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웰빙 관련 강의나 행사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웰빙을 주된 가치로 표방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웰빙의 흥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릭 윌슨(Eric G. Wilson)은 이러한 시대를 만족을 제일로 아는 행복 완전정복의 시대라고 보았다. 이는 마치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a brave new world)』처럼 영원한 행운이 거듭되는 세계이자, 모든 걱정에서 면제된 즐거움의 세계이며,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행복의 질주가

11) 행복은 다의적이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행복은 강렬한 기쁨(intense joy), 지복(bliss)과 황홀감(rapture)의 상태를 의미하거나, 삶에서 지속되는 만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공(successful)의 동의어로 또는 지고의 선(highest good)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주장되기도 한다. Fred Feldman, *What is This Thing Called Happi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27.

12) 최말옥, 「남성과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교」,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7집 2호, 2011년 5월, 20 참고.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¹³⁾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건강하고 안락한(well) 삶 그 자체(being)”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행복, 안녕, 복지 등과 같은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웰빙 트렌드는 198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반 패스트푸드(slow food)운동이나 1990년대 초, 느릿느릿하게 살자는 기치를 내걸고 오스트리아에서 등장한 슬로비족(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 혹은 미국의 새로운 엘리트 계층으로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추구한 보보스족(bobos)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¹⁴⁾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일제 강점기의 식민통치, 전쟁과 기아, 군부독재로 인한 정치적 혼란, 경제성장, 민주화 투쟁, 대외개방과 세계화로 이어지는 격변기를 거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다. 생활수준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웰빙 신드롬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주의적 소비문화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상업적 광고 매체들은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불만족을 일으켜 행복을 위해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자극한다. 이러한 소비문화는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끝없이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¹⁵⁾ 시톱스키(T. Scitovsky)는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상품들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즐거움이나 행복감만을 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⁶⁾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피상적인 행복의 추구는

13) Eric G. Wilson, *Against Happiness*, 조우석, 『멜랑콜리 즐기기』(서울: 세종서적, 2010), 13.

14) 이대일, 「조형물의 창조와 수용을 통해 본 웰빙시대의 행복」, 이덕환, 『웰빙과 행복』, 201.

15) 소비사회란 상품의 사용가치, 곧 도구적 용도보다는 행복이나 위세 같은 기호적 가치가 소비의 고유한 영역이 되는 사회이다. 사람들은 과시적 소비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한다. http://money.kbstar.com/quics?asfile-code=5023&_nextPage=page=rainbow “권석만의 행복탐구” (2011년 8월 29일 검색)

쉽게 맛보는 반면 깊은 성찰을 통한 심오하고 지속적인 행복의 추구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비를 통해 탐욕과 자기만족을 충족시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심층적인 차원에서 얻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성찰을 통해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성적 사유가 없는 삶은 아무리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¹⁷⁾ 그런 점에서 행복은 삶 전체가 가치 있는 삶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또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행복관은 오복이다. 오복(五福)이란 수(壽), 부(富), 강녕(康寧, 건강하고 평안한 것), 유호덕(攸好德, 덕스러운 행동을 좋아하는 것), 고종명(考終命, 수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행복담론은 유호덕을 뺀 나머지의 복만을 추구하는 기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덕스러운 삶의 행동방식을 강조하는 유호덕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기초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16) 이정전, 「행복경제학」, 이덕환, 『웰빙과 행복』, 162-163. 각종 전자제품, 맛있는 음식과 술, 오락 등은 쉽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싫증이 나서 즐거움이 감소하는 반면, 사랑, 우정, 화목한 가정, 존경, 명예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소비할수록 더욱 깊어지며 즐거움이 점차 증폭된다.

17) 성보훈·윤선아,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연구소, 『뇌교육연구』 6권, 2010년 9월, 106 참조. 콜링우드는 행복을 내적 웰빙과 외적 웰빙의 결합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내적 웰빙 또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웰빙은 덕이며, 외적 웰빙 또는 자기 자신 밖에 있는 것과 관련된 웰빙은 힘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행복을 형성하는 덕과 힘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신득렬, 『행복의 철학』(서울: 학지사, 2007), 37. 진정한 웰빙은 내적인 웰빙과 외적인 웰빙이 잘 조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III. 개인적 차원의 행복

행복이란 개념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행복은 삶 속에서 느끼는 만족도라는 다분히 질적인 성격이 포함된다. 행복은 하나의 상태로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실현되어 만족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1. 행복과 행운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건과 일들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점에서 행복은 마치 메테를링크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파랑새처럼 조금만 한 눈을 팔아도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다.¹⁸⁾ 그래서 어떤 이들은 행복이 노력이나 성취의 결과라기보다는 일종의 운이나 예기치 못한 계기를 통해 얻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행복이라는 말의 어원은 ‘행운’ 또는 ‘기회’를 뜻하는 아이슬란드어 ‘happ’로, haphazard(우연), happenstance(우연한 일)와 어원이 같다.¹⁹⁾ 행복이 이러한 어원을 갖게 된 것은 행복이 운에 영향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상 속에서 소박하게 만드는 우연적인 요인들이 가끔 행복한 감정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행복에 대한 경험은 우연으로 돌릴 수 없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행운 보다는 더욱 폭넓고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

18) 메테를링크의 소설 〈파랑새〉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우화이다. 틸틸과 미틸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 여러 곳을 여행하다 결국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집 새장에 있는 새가 파랑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집에서 찾았던 파랑새마저 날아가 버리고 만다.

19) Tal Ben-Shahar, 『해피어』, 31.

는데, 이는 행복이 행운을 넘어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²⁰⁾ 김태길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 보다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²¹⁾ 또한 존 롤스는 인생설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행복개념을 설명하였다. 롤스는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불만족감에 달려 있지 않다고 보고, 그보다 자유의 계기 혹은 능력을 다한 투신 그리고 성취의 가능성을 더 강조하였다.²²⁾ 그는 행복에 관한 형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것은 각자의 재능과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들과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과 행운이 관련이 깊지만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운에 따른 선은 선한 사람에게는 문제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도리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바람직한 행복은 운이 아니라 덕스러운 인격과 연관되어야 한다.

2. 쾌락과 행복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다고 주장했다.²⁴⁾ 선은 바로 고통이 없는 쾌락의 삶이며, 최고의 쾌

20)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첫째, 복된 좋은 운수 또는 행운이고, 둘째,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살고 있는 기쁨을 느끼는 호뭇한 상태이다. 행복에 해당하는 말로는 헬리어로 유다이모니아(eudaimonia)와 마카리아(makaria)가 있고, 라틴어로는 펠리치타스(felicitas)와 베아티투도(beatitudo)가 있다. 강영계, 『행복학강의』(서울: 새문사, 2010), 256.

21) 김태길, 「행복으로 가는 길」,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17호, 1993년 6월, 82. 김태길은 행복의 객관적 조건들로서 ① 기본생활의 안정 ② 건강 ③ 자아의 성장 ④ 공동체 안에서의 떳떳한 생활 ⑤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제언했다. 이 다섯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깊은 만족을 얻는 동시에 마음의 평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았다. 김태길, 「행복의 조건」,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18호, 1993년 9월, 102.

22) 김용해, 『젊은이의 행복학』(과주: 서광사, 2011), 33.

23) 신득렬, 『행복의 철학』, 38.

24)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종류를 고통을 수반하는 역동적 쾌락과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수동

락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에서 해방된 평온한 상태이다.²⁵⁾ 즉, 행복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상태 곧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ataraxia)의 상태라고 보았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에 의한 감정조절을 행복의 핵심요건으로 보았다. 디오게네스는 육체적으로 금욕하면서 평정심을 추구하였는데, 가능한 한 육체적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정신적 지혜를 소유하는 행복을 추구하였다.²⁶⁾

공리주의자였던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치판단의 최종기준으로 여겼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쾌락과 행복을 얼마나 증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벤담은 행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행복의 강도(intensity), 지속성(duration), 확실성(certainty), 근접성(propinquity), 순수성(purity), 생산성(다산성, fecundity), 확대 범위(extent) 등 7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측정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Good of the greatest Number)”이 도덕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법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이와 달리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여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만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이러한 쾌락을 사회 전체로 확대시킬 때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은 쾌락 이상이다. 쾌락

적 쾌락으로 나누고, 후자를 누리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하였다. 과음이나 지나친 성적 쾌락은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이며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격조 높은 우정이나 철학적 담소 같은 것은 그 자체로서 즐거움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쾌락이고 이러한 것을 즐길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엄정식, 『행복의 개념』, 128.

25) Stuart McCready ed, *The Discovery of Happiness*, 김석희, 『행복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서울: 휴머니스트, 2010), 197.

26) 강영계, 『행복학강의』, 240.

27) 벤담은 가장 좋은 사회가 시민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회이며, 가장 좋은 정책이란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Richard Layard, *Happiness*, 정은아, 『행복의 함정』(서울: 북하이브, 2011), 29.

은 행복의 일부가 될지는 몰라도 쾌락이 진정한 행복일 수는 없다. 쾌락은 일시적인 행복을 줄지는 몰라도 영속적인 행복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3. 덕스러운 삶과 행복

행복은 각 개인이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어떤 심리상태로 외부의 환경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혹은 심리상태에 따라 행복도는 달라진다. 반신환은 행복의 척도를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에 두고 판단하는 것을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하고, 긍정적 정서와 같은 심리학적 이론에 비취 판단하는 것을 심리적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이라고 보았다.²⁸⁾ 행복도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의 차원에서 두 가지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삶에 대한 만족도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평가이다. 둘째는 감정적 균형으로서 얼마나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가, 즉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이거나 불행한 감정보다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얼마나 더 많이 더 자주 느끼느냐를 척도로 삼는다.²⁹⁾

그런데 행복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는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온전한 행복은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를 넘어 그의 삶 전체가 가치있는 행위의 차원으로 드러나 일관되게 유지되고, 또한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실제로 좋은 삶을 사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28) 반신환, 「행복한 가족의 특징」, 『대학과선교』 8집, 대학과선교학회, 2005년 2월, 325 참고.

29) 이덕환은 감정적 균형을 어펙티브 웰빙(affective well-being)이라고 하였다. 이덕환, 『웰빙과 행복』, 29 참고.

플라톤은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바람직해야 하고 그 자체로서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eudaimonia)³¹⁾을 인생의 가장 좋은 것(최고선)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행복과 덕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였다.³²⁾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이란 최고의 성취인데, 우리의 특별한 인간적 미덕, 이성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즉 행복이란 “미덕을 표현하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것이다.³³⁾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의 발휘를 통한 덕의 추구가 곧 행복이며, 행복은 다름 아닌 영혼의 온전함이라고 보았다. 행복은 단순한 심리적 만족상태가 아니라 유덕한 행위이다. 행복한 사람이란 유덕하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다.³⁴⁾

덕은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행복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제 기능을 발휘했을 때 찾아오는 정신적 만족감이며 이런 만족감은 증용을 실천했을 때 얻어진다. 이성의 기능을 끊임없이 발휘하며 사는 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면 이것이 바로 덕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³⁵⁾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최고의 좋음인 행복은

30) S. McCready, 『행복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98. 플라톤은 행복이란 영생불멸의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가 죽음으로 육체에서 해방된 뒤 신을 명상하며 즐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책, 195.

31) 헬라어 eu(좋은)과 daimon(신, 영혼, 악마)의 합성어로 좋은 신, 안내해주는 영혼을 옆에 가진다는 의미를 갖는데, 신성이라는 개념도 띤다. Darrin McMahon, *Happiness: A History*, 윤인숙, 『행복의 역사』(과주: 살림, 2008), 18-19.

3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의도된 행위는 어떤 목적을 지향하며, 이 목적이 성취되면 이 목적은 다시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 그 위의 목적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목적과 수단의 지속적인 연쇄관계를 밟아 올라가면 그 자체가 목적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였다.

33) Darrin McMahon, 『행복의 역사』, 73.

34)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좋은 상태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발휘하는 활동에 부여된다는 점에서 행복은 잘 행동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편상범, 『윤리학. 행복은 도덕과 같동하는가?』(서울: 민음인, 2009), 125.

35) 이재향,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덕의 개념」,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동서사

완전성과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두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좋음에 대해 ‘행복’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⁶⁾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탁월성(arete)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행복은 가장 고상한 최상의 선으로서, 덕이나 탁월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완전한 덕에 따른 활동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온전한 행복은 오로지 지적인 활동, 즉 관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조는 신의 활동을 가장 많이 닮은 것으로서 인간행위의 지침이 된다. 유덕한 생활, 즉 덕스러운 삶은 가장 안정적이고 영속적이며, 덕에 따른 행복은 지속적이다.³⁷⁾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최고의 선인 행복에 이르기 위한 덕의 실천은 탁월성에 속하는 중용으로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고 실천적 지혜는 깊은 숙고에서 나온다. 자연에 일치하는 삶과 행복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올바른 삶의 태도인지를 깨닫게 하는 실천지 즉 프로네시스(phronesis)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³⁸⁾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탁월한 덕이라고 보았다. 행복이 덕을 따르는 활동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최고의 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³⁹⁾ 행복은 최상의 덕에 따르는 활동이며 행복은 이론적 관조 즉 지혜의 사용과 동일시된다. 행복은 인간의 영혼이 가장 탁월한 상태에서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가장 완전히 실천할 때 발생하고,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상』 2집, 2007년 2월, 40.

36) 김미진,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행복 개념」,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동서사상』 6집, 2009년 2월, 4.

37)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유덕한 사람은 불운이 온다 하더라도 가장 고상하게 그리고 아주 품위 있게 참을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비참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중요할 정도의 야미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38) 차영선, 「17세기 후반기 프랑스의 사회·종교적 관점의 ‘덕’과 ‘행복」,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68집, 2009년 11월, 353.

39) Aristoteles, 최명관, 『니코마코스 윤리학』(서울: 창, 2009), 386.

상태를 말한다. 행복을 야기하는 인간 능력의 가장 완전한 실천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본질적 특성은 그것이 지속적 활동이어야 하고, 만족감을 체험하게 하며, 외부적 상황의 조건들과 무관하게 수행되고, 오직 그 실천 자체를 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들에 가장 완벽하게 상응하는 것은 관조적 활동이다.⁴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존재의 완전한 상태로서 잘 행동함, 즉 가치 지향으로서 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윤리적 덕성과 같은 내면적 자질은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훌륭한 덕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적 조건에 굴하지 않도록 이끄는 내면적 자질이다. 이러한 덕성은 오랜 기간 동안 내면적 자기 수양과 훈련을 통해 형성되기에 더욱 가치 있다.⁴¹⁾

칸트는 선의지와 의무에 따라서 실천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칸트는 행복하게 사는 것 보다는 선의지와 의무에 따라서 사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다.⁴²⁾ 그런 점에서 칸트가 생각하는 최고의 덕은 덕과 행복의 통일이다.⁴³⁾ 칸트에 따르면 덕과 행복의 통일은 현실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칸트는 영혼불멸을 실천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로 볼 때 행복은 잘 사는 것이며, 잘 산다는 것은 좋은 품성을 갖고 덕스럽게 사는 것이다. 엄정식은 행복을 본질적으로 선악의 가치가 개입된 윤리적 개념으로 보았다.⁴⁴⁾ 행복은 개인적 심리상태를 넘어 사회의

40) 김용해, 『젊은이의 행복학』(과주: 서광사, 2011), 54.

41) 유호준은 '도덕적 추구와 자기행복 추구가 잘 통합된 삶' 즉 '의무에 벗어나지 않게 자기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행복교육을 더 강화함으로써 도덕 교육과 행복 교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호준, 「행복교육과 도덕교육」,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16권 1호, 2004년 8월, 237.

42) 강영계, 『행복학강의』, 339.

43) 칸트는 지복(Seligkeit)과 행복(Glück)을 구별하고 있는데, 지복은 모든 욕구해소를 통해 세상 안에서 얻게 되는 이성적 존재의 상태이지만,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완성하기가 어려운 욕구의 필연적 목적이다. 김용해, 『젊은이의 행복학』, 31.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에서만 경험되고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만족하고 즐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김선옥은 행복을 개인적 차원에서의 심리적인 행복감으로만 여길 경우 현실의 부정의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로만 여기는 일종의 자기기만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하였다.⁴⁵⁾ 따라서 온전한 의미의 행복은 개인의 감정적 차원이나 덕스러운 삶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성이 있다.

IV. 사회적 차원의 행복

행복은 경제적인 요인에서부터 사회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신체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⁴⁶⁾ 온전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welfare)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개인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공적인 차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⁴⁷⁾ 사회적 차원의 행복이

44) 엄정식, “행복의 개념”, 이덕환, 『웰빙과 행복』(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119.

45) 김선옥, 『행복의 철학』(서울: 길, 2011), 7.

46) 류보머스키(Lyubomirsky)에 따르면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10% 결정되고, 유전에 의해서 50% 결정되며, 자기 자신의 의도적인 활동에 의해 40%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Sonja Lyubomirsky, *The How of Happiness*, 오혜경, 『How to be Happy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서울: 지식노마드, 2008), 15. 프랙(B. Van Praag)과 카보넬(A. Ferrer-I-Carbonell)은 만족도를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 사회 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직업, 건강, 가족, 주거, 여가활동, 주변 환경 등과 연관시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B. Van Praag & A. Ferrer-I-Carbonell, *Happiness Quantifi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47) 김승권,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중요한 이유는 한 개인의 행복은 그의 이웃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결코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한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행복을 더 많이 향유하게 될 것이고, 불행한 공동체일수록 구성원의 불행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 주거, 고용, 보건의료, 문화, 환경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균형 잡힌 복지정책이 담보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행복을 담보하는 사회 제도적인 차원은 사회경제적 보장(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력(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량강화(social empowerment) 등의 네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다.⁴⁸⁾ 사회경제적 보장은 구성원들이 공동체로부터 필요한 물질, 환경, 자원을 적절하게 공급받아가를 드러내는 척도이다. 사회적 응집력은 공동체가 다양한 형태의 응집력으로 구성원들 간에 연대성을 형성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포용력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포용력이 어느 정도로 강인가를 드러낸다. 사회적 역량강화는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힘을 부여하거나 지지를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행복을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망의 증대는 정보 소통의 원활화, 공동의 화제와 활동, 그리고 관심사의 충족을 수반하며 이러한 연결망에 참여하는 다른 행위자들 역시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⁴⁹⁾ 따라서 친밀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주요 요인이 되지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년 12월, 95.

48) 같은 책, 41 참고.

49) 이금순 외,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13-14.

소외, 격리, 고립 등 사회적 연결망의 약화 혹은 결여는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철우는 인간관계를 행복의 필수요소로 보면서, 인간관계가 나쁘면 다른 요인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⁰⁾ 그런 점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오랫동안 친밀하고 안정된 관계를 갖는 것은 행복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사회 연대성이나 포용력 그리고 공정성 등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사회 통합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공통의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고, 부와 소득의 격차를 좁히고 신체적 차이와 이념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하나의 과정이다.⁵¹⁾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소득의 불균형 현상은 구성원들의 연대성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된다.

경제발전이 구성원들의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스털린 패러독스를 통해 잘 드러난다.⁵²⁾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소득 규모 보다 소득 분배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⁵³⁾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체감실업률이 급증하면서 노동구

50) 샤펜프로이데(Schadenfreude)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약간 심술כות은 심리상태를 말한다.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이 고통 받거나 꼴탕 먹는 모습을 보고 은밀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반면 무디타(Mudita)는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가짐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자기 일인 양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이철우, 『행복을 훈련하라』(파주: 살림, 2011), 71, 86. 90.

51) 조영기, 『선진화 시대의 사회통합』(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27 참고.

52) 잉글하트는 각국의 행복지수와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소득이 행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현대사회의 탈물질적인 가치관의 등장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구혜란, 「행복감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2009년 12월, 951.

53) 높은 소득이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소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

조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통상 0.35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2008년 말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5로 나타났고, 그 수치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⁵⁴⁾ 경제발전을 통한 단순한 소득보장이 소외된 자들의 행복도를 향상시키지 못한다. 에드 디너(Ed Diener)는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물질적인 부의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경쟁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된 반면, 사회적 관계의 질은 낮고 타인에 대한 신뢰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⁵⁵⁾

정수복은 행복이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 맺음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⁵⁶⁾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유와 지배와 정복의 관계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과 교감을 통한 진정한 관계맺음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행복한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내재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공동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행복을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또한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사회적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트러스트』의 저자 후쿠야마에 의하면, 한 나라의 경제는 규모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사회적 자본이 필요

다.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3.

54) 1990년에 0.274, 1995년에 0.268, 2000년에 0.286, 2005년 0.304, 2006년에 0.313, 2007년에는 0.324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종목, 『심리학 노트에 쓴 행복이야기』(서울: 피앤피디자인, 2010), 42. 경제적 불평등은 수명단축과 사회적 불행의 원인이 된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경제적인 부가 가장 공평한 나라이다. 미국은 CEO와 평사원의 임금 차이가 최고 344배나 되는 반면 일본은 3배에 불과하다. 일본 총리의 임금 또한 보통 노동자의 4배 정도에 불과하다. 이상철, 『행복의 커뮤니케이션』, 『동서언론』 13집, 동서언론학회, 2010년 2월, 22.

55) 한국일보, 2010년 12월 9일자.

56) 정수복은 근대 사회의 관계 맺음이 도구적 관계맺음이라면 탈근대 사회의 관계맺음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정수복, 『포스트모던 행복론』, 『환경과생명』 27호, 2001년 3월, 153.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신뢰라고 보았다.⁵⁷⁾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기반하여 행복에 집착하게 되면 서로 간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약화시킨다.

최근 행복공동체를 위한 프로보노(pro bono)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실천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과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⁵⁸⁾ 이러한 시도는 사회 공동체의 선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된다.

온전한 의미의 행복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행복공동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행복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아우르는 영적 차원에서 폭넓게 조명될 때만이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V. 영적 차원의 행복

행복을 추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⁵⁹⁾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온 목적도 죄인들을 구원하여 행복하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 오셨다.⁶⁰⁾ 진정한 행복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에 기초한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회복될 때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의식이 정립된다. 따라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의 근간이

57)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2011』, 328.

58)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자신의 재능을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59) 창세기 1:27-28.

60) 요한복음 10:10.

되는 신 중심의 영적 차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 중심의 영적 관점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든든히 받쳐주는 기반이다. 영적 차원에서 삶을 폭넓게 조망할 때 인생에서 겪는 불안이나 예기치 못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달려있으며, 결국에는 선하고 아름답게 결말지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바르톨로메오 파초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성공이나 성취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행복은 부귀영화나 권력을 통해서도 찾을 수 없기에 이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독교의 미덕인 믿음, 소망, 사랑을 도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⁶¹⁾ 또한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진정한 행복은 육체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을 관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영혼의 특성이라고 하였다.⁶²⁾ 행복한 영혼은 하나님을 관상하고 사랑함으로써 궁극적인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베일런트는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적 감정인 영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⁶³⁾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의 추구를 인간의 실존적 삶의 완성을 위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행복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삶과 인격의 성숙을 위한 최고선이었다.⁶⁴⁾ 그는 인간의 행복은 최고선이자 모든 도덕적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⁶⁵⁾ 하나님만이 인간

61) S. McCready, 『행복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185.

62) 같은 책, 196.

63) G. E. Vaillant, 『행복의 완성』, 16.

64)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안정 없이 요동하는 실존적 인간이 영원불변의 존재에게서 안정을 얻으려는 갈망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서울: 서광사, 1996), 28-29.

의 행복을 위해 진정한 만족을 베푸시는 분이며,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좌절에 이르게 된다. 그는 『고백록』의 첫 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쉬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목적으로서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한 삶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욕구하며 간절히 바라는 바임을 천명하면서, 행복한 삶이란 진리를 소유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진리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며, 결국 행복한 삶이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는 진리로서의 하나님, 인간의 의지와 영혼을 만족시키는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한다.⁶⁶⁾ 그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애덕을 제시하였는데,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레테(arete)와 같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자로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⁶⁷⁾ 그는 카리타스를 행복 추구의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였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적 계율의 해석에 적용하였다.⁶⁸⁾ 그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65) J. H. Harvey, *Moral Theology of the Confessions of Saint Augustine*, 문시영, 『고백록, 윤리를 말한다』(서울: 북코리아, 2011), 8.

66) 같은 책, 29 참고.

67)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행복의 문제는 윤리학의 근본문제인 동시에 그의 사상 전체에 삼투해 있는 근본문제이다. 그에게 행복에 관한 논의는 그 개념에 관한 철학적인 논증과 행복 성취의 방법으로서의 덕 그리고 행복 추구의 저해 요소로서의 악의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적 틀을 형성한다. 같은 책 19-20.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나는 존재하고 인식하며 욕구한다. 즉 나는 인식하고 욕구하는 가운데 존재하고, 나는 존재하고 욕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나는 존재하고 인식하기를 욕구한다”라고 말하였다. 인간의 존재성(존재), 지성적 탐구(지성), 그리고 윤리적 실천(의지)이 한 인격 안에서 삼위일체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용해, 『젊은이의 행복학』(과주: 서광사, 2011), 7.

68)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24-25.

이라고 보면서 향유해야 할 대상을 향유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은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질서 잡힌 사랑, 혹은 바른 사랑(caritas)이라고 말하고, 그 반대의 경우 즉 질서를 망각하고 사용의 대상인 시간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에 집착함으로써 행복해지려는 것을 왜곡된 사랑(cupiditas)이라고 하였다.⁶⁹⁾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며 행복 자체라는 전제 하에 인간이 행복 자체인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사랑이라고 말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행복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리타스야말로 최고선을 사랑하는 진정한 덕이며, 이러한 카리타스의 덕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행복은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덕적 이상이고, 행복 성취의 필수 요건은 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직관하는 것(visio dei)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달성이라고 보았다.⁷⁰⁾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적인 지혜가 행복의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인간은 욕구하고 찾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본성만을 바라볼 때 궁극적이고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⁷¹⁾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을 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으로 구분하였다. 미적 실존의 단계에서 인간은 쾌락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실존을 망각하게 된다. 따라서 참다운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적 실존으로부터 윤리적 실존으로 비약해야 한다.⁷²⁾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단독자로 선다

69) 같은 책, 94.

70) 같은 책, 167.

71) Thomas Aquinas, tr Richard J. Regan, *Virtue: Way to Happiness*(Scranton: University of Scranton Press, 1999), 9.

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종교적 실존은 철학의 좌절로부터 종교로의 비약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행복은 실존단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미적 실존에서의 행복은 쾌락이고, 윤리적 실존에서의 행복은 사랑이며, 종교적 실존에서의 행복은 신앙이다. 따라서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종교적 실존의 행복이다. 삶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로 수용하는 데서 영적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삶 그 자체를 채워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행복인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행복 위에서 정립된 온전한 행복은 좋은 삶, 선과 인격의 삶, 지혜와 친절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은 깊은 평안 또한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피상적인 행복은 일시적이고 강렬하지만, 거짓되고 공허한 자기만족감으로 그친다.⁷²⁾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성 위에 정립된 덕스러운 삶이며, 이러한 덕스러움이 가득한 행복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복이다. 이러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능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행복 공동체를 역동적으로 이루어가는 동인이 된다.

72) 강영계, 『행복학강의』, 357.

73) J. P. Moreland & Klaus Issler, 정성목 역, 『진짜행복』(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25. 잠언 17:22에는 “마음의 즐거움(cheerful heart)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crushed spirit)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즐거움과 영혼의 근심을 대조시키고 있다.

현대의 행복 - 기분 좋은 만족감	진정한 행복 - 선과 인격
강렬한 느낌	고정된 톤
환경에 의존	내면에서 나옴
일시적	꾸준하고 일정함
중독성	의욕을 일으키고 자유롭게 함
자기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되고, 삶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거짓되고 공허한 자아를 만들어 냄	전체 자아와 통합되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참된 자아를 만들어 냄
전략 - 자기주의와 자기에로 연음	전략 -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로 연음

VI. 나오는 말: 행복 공동체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위에서 한국사회의 행복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온전한 행복의 조건을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행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하는 인생의 목적임과 동시에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사회를 이룩하도록 이끄는 동력이다.

온전한 행복은 한 개인의 건강, 직업,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삶의 국면에 대한 만족감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조화롭게 통합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육체를 비롯해 지성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지성적 측면에서는 자아의 성장과 덕의 함양을 통해 이웃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행복한 삶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충족될 때 완성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사회 전체적인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구조로 말미암은 양극화 현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를 개혁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 제도적인 모순들을 개혁하고, 안정된 고용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승자독식 체제를 개혁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공생과 상생의 미덕을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사회보장 정책과 의료보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복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가 행복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가 그만큼 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추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윈-윈 게임이다.⁷⁴⁾ 따라서 한국 교회가 먼저 행복한 덕스러운 공동체로서 본을 보임으로써 온전한 행복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시켜 행복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행복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많다. 먼저 한국 교회 스스로 행복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행복 공동체의 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행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성과 지향적이거나 목표 지향적인 물인간적인 경쟁 구도를 탈피하도록 계도하고,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강조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환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 교회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행복의 피상적인 차원의 위험성을 알리고 전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공동체의 미덕과 연대성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74) 리처드 레이어드(R. Layard)는 제로섬 게임에 반대 개념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복은 positive sum game이라고 주장하면서 행복만들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을 제안하였다. Richard Layard, 『행복의 함정』, 320-322 참고.

참고문헌

- 강영계. 『행복학강의』. 서울: 새문사, 2010.
- 구혜란. 「행복감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2009년 12월.
- 김난도 외. 『트랜드 코리아 2010』. 서울: 미래의창, 2009.
- _____. 『트랜드 코리아 2011』. 서울: 미래의창, 2010.
- 김미진.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행복 개념」.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동서사상』 6집, 2009년 2월.
- 김선욱. 『행복의 철학』. 서울: 길, 2011.
- 김승권.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년 12월.
- 김용해. 『젊은이의 행복학』. 광주: 서광사, 2011.
- 김태길. 「행복으로 가는 길」.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17호, 1993년 6월.
- _____. 「행복의 조건」.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18호, 1993년 9월.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6.
- 박성우. 「행복(eudaimonia)의 정치」,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9집 5호, 2005년 12월.
- 박종일 · 박찬웅 · 서효정 · 염유식.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44집 2호, 2010년 4월.
- 반신환. 「행복한 가족의 특징」. 대학과선교학회. 『대학과선교』 8집, 2005년 2월.
- 성보훈 · 윤선아.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연구소. 『뇌교육연구』 6권, 2010년 9월.
- 신득렬. 『행복의 철학』. 서울: 학지사, 2007.
-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오원호. 『행복을 유영하는 삶』.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9.
- 유호중. 「행복교육과 도덕교육」.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16권 1호, 2004년 8월.
- 이금순 · 고성호 · 안혜영 · 장혜경, 「비핵 · 개방 · 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9-17-06』, 2009년 12월.
- 이덕환. 『웰빙과 행복』.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 이상철. 『행복의 커뮤니케이션』. 동서언론학회. 『동서언론』 13집, 2010년 2월.
- 이재향.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덕의 개념』.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동서사상』 2집, 2007년 2월.
- 이종목. 『심리학 노트에 쓴 행복이야기』. 서울: 피앤피디자인, 2010.
- 이철우. 『행복을 훈련하라』. 파주: 살림, 2011.
- 정수복. 『포스트모던 행복론』. 『환경과생명』 27호, 2001.3.
- 조영기. 『선진화 시대의 사회통합』.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 차영선. 『17세기 후반기 프랑스의 사회·종교적 관점의 ‘덕’과 ‘행복』.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68집, 2009.11.
- 편상범. 『윤리학: 행복은 도덕과 같등하는가?』. 서울: 민음인, 2009.
- Aristoteles · 최명관.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창, 2009.
- Aquinas, Thomas, tr Regan, Richard J. *Virtue: Way to Happiness*, Scranton: Universtiy of Scranton Press, 1999.
- Feldman, Fred. *What is This Thing Called Happi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Foley, Michael. *The Age of Absurdity*, 김병화, 『행복할 권리』. 서울: 어크로스, 2010.
- Gilbert, Daniel. *Stumbling on Happiness*, 서은국 · 최인철 · 김미정.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파주: 김영사, 2009.
- Harvey, J. H. *Moral Theology of the Confessions of Saint Augustine*, 문시영. 『고백록, 윤리를 말하다』. 서울: 북코리아, 2011.
- Layard, Richard. *Happiness*, 정은아, 『행복의 함정』, 서울: 북하이브, 2011.
- Lyubomirsky, Sonja. *The How of Happiness*, 오혜경, 『How to be Happy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서울: 지식노마드, 2008.
- McCready, Stuart ed, *The Discovery of Happiness*, 김석희, 『행복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서울: 휴머니스트, 2010.
- McMahon, Darrin. *Happiness: A History*, 윤인숙, 『행복의 역사』. 파주: 살림, 2008.

- Moreland J. P. & Issler, Klaus, 정성목, 『진짜행복』.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 Myers, David G. *The Pursuit of Happiness*, 김영곤 · 오강남 · 이동렬 · 이연섭, 『주머니 속의 행복』. 서울: 시그마북스, 2008.
- Praag, B. Van. & Ferrer-I-Carbonell, A, *Happiness Quantifi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http://money.kbstar.com/quics?asfilecode=5023&_nextPage=page=rainbow
서울신문, 2011년 5월 5일자.

논문투고일 : 2012. 04. 30

심사개시일 : 2012. 05. 16

게재확정일 : 2012. 06. 22

• 국 문 초 록 •

본 소고는 최근 한국 사회의 행복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온전한 의미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온전한 행복은 한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우리 삶의 근간을 지탱하는 영적 차원에 기초할 때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웰빙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상업주의적 소비문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상업화된 웰빙은 온전한 의미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적 차원의 행복은 쾌락이나 만족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쾌락이나 심리적 만족감 이상이다. 온전한 행복은 자신의 삶을 좋다거나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런 점에서 행복은 잘 사는 것이며, 좋은 품성을 갖고 덕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제도적이고 집단적인 개념의 행복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의 근간이 되는 영적 차원의 행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삶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로 수용하는 데서 영적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삶 그 자체를 채워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행복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온전한 행복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이 조화롭게 통합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육체를 비롯해 지성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지성적 측면에서는 자아의 성장과 덕의 함양을 통해 이웃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행복, 웰빙, 복지, 영적 행복, 삶의 질, 덕, 은총
